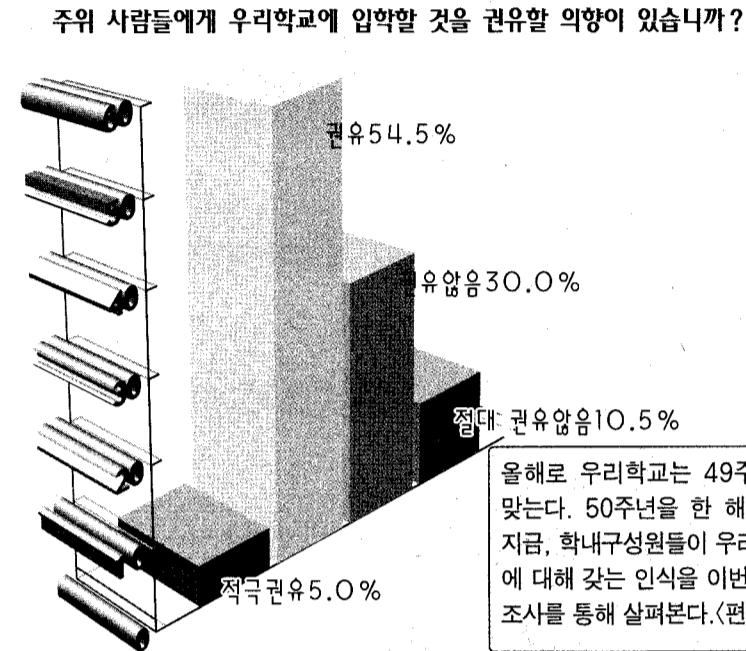


□ 개교기념 특별기획 - 학내구성원 '경희' 인식도 설문조사

## 재학생 59.5% 경희대 '괜찮아요'

응답자 534명 중 318명, 주위 사람에 우리학교 입학권유 의사 있어



우리학교 재학생 가운데 59.5% 이상이 우리학교를 다녀도 좋을 만한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신문사는 개교 49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캠퍼스의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위 사람에게 우리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중 59.5%가 '괜찮다'고 답해 우리학교를 가까운 사람에게 권해도 좋을 만한 대학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구성하는 3주체라고 일컬어지는 교수·직원·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입지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학내 복지시설, 환경, 정채 등 3부문에 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먼저 복지 부문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서울 학생들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58.42점을, 수원 학생들은 학생회관 식당에 58.63점, 공대 식당에 63.91점, 체대 식당에 60.46점을 주어 학생 식당 가운데에는 수원 캠퍼스의 공대 식당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식당의 경우,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학생들의 구미를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는 식당의 전반적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1개월 전부터 도입, 실시하

고 있다.

모니터 요원은 일반학생 3명과 식품영양학과 학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학생은 식당의 서비스나 식사의 맛 등을,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식단의 영양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평균점이 양 캠퍼스 모두 60점대에 머무는 학생식당과는 달리 교직원 식당의 경우 서울·수원간에 10점 이상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는데, 교수들로부터 70.60점을 받은 수원캠퍼스 교직원 식당에 비해 서울 교직원 식당은 60점에 못 미치는 56.29점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수원캠퍼스의 교직원 식당이 서울캠퍼스에 비해 배식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식단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면으로 이어짐)

## 대학주보 서울캠퍼스 수습기자 추가모집

원서마감 오는 22일

이번주 금요일 오후 5시 서울캠퍼스편집실에서 대학주보 기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으십시오.

- 대상: 98학년도 신입생
- 모집부문: 취재기자, 컷기자, 사진기자
- 선발방법: 간단한 필기시험 및 면접
- 선발일정: 5월 22일 서울캠퍼스 편집실 오후 5시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
- 선발인원: 00명

대학주보사

## 세계로 뻗어가는 경희의 위상

차이나데일리, 조총장 주재 발표 주요기사로 다뤄 아시아위크, 경희대 평가 전 아시아 대학 중 37위



지난 5일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북경대학 100주년 기념 포럼 참석차 북경을 방문한 조정원 총장의 주재발표를 주요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의 내용은 21세기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3일 양일간 북경대학에서 세계 유명 60개 대학의 총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조정원 총장을 비롯, 첸지아어 중국 북경대 총장, 루카스 영국 옥스퍼드대 부총장, 캐스퍼 미국 스탠포드대 총장, 버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총장 등 5명 석학들의 주재발표를 요약 게재한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정원 총장은 21세기 대학의 역할은 물신화되어 가는 세계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적 윤리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또한 21세기 대학은 개방화된 세계 속에서 신기술과 인력자원을 개발하는데 보다 더 활발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대학교육은 더욱 특성화되고 다양해지므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윤리적 증진에 필요한 인문학 연구도 필수적 부문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의 유력 주간지 아시아 위크는 지난 15일 전아시아 지역의 종합대학을 종합평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전아시아 대학 중 종합점수 46.37점을 얻어 37위에 랭크되었다. 이 평가는 대학의 명성, 학생선발, 연구, 재정 등 9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우리대학은 학생선발과 연구분야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25위)를 받은 반면, 학생 대 교수 비율 영역에서 낮은 평가(59위)를 받았다.

## 19일, 98 봄 대동제 막 오른다

거리문화제, 마라톤 대회, 자전거 타기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일시	시간	행사명	행사장소
5/18	오후 7시30분	017 영화축제	노천극장
	오후 9시	심야영화제 - 첫번째	임간교실
	오후 1시	장승국, 개막제	정문앞, 진입로
5/19	오후 4시	우리 소리 우듬지 보자마라	본관 앞
	오후 5시30분	신명 몸짓 한마당	노천극장
	오후 9시	심야영화제 - 두번째	의대 앞 대운동장
5/20	오전 11시	다큐멘터리 영화제	도서관 시청각실
	오후 3시	'세상 모든 민중과 함께' 동원제	노천극장
	오후 8시	수요일의 젊은 영화제	노천극장
5/21	오후 2시	전통문화 축제	본관 앞
	오후 6시	영화골프대회	노천극장
	오후 7시30분	회기동 마라톤 대회	회기동
5/22	오후 4시	회기동 거리문화제	회기동
	오후 7시	시사대 토론대회	회기동
	오후 8시	수원 캠퍼스 대동제	수원 캠퍼스

'세상 모든 민중과 함께'라는 주제의 봄 대동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캠퍼스 곳곳에서 열린다. 오늘 오후 9시 전야영화제를 시작으로 19일 오후 1시 정문 안쪽에 새로운 장승을 세우고 장승굿을 벌인 후 대동제의 막을 올린다.

총학생회가 준비한 행사로는 징검다리 문화제와 다큐멘터리 영화제, 마라톤 대회, 회기동 거리문화제, 사자머리 대기와 대동놀이 등이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징검다리 문화제는 2년전부터 총학생회가 준비한 사업으로 2학기부터는 2주에 한번씩 열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렸던 젊은 영화제 특선으로 20일 오전 11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세상 모든 민중과 함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며,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노천극장에서 젊은 영화제를 연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KBS 2TV '일요일은 즐거워' 경희대편 녹화가 있다. 녹화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외협력실(961-0023)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회기동 주미과 경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가 대동제 마지막 날인

## 수원, 총여학생회장 조영희양 총여비역학생회장 정현기군

제9대 총여학생회장 조영희양은 이번 총여비역 선거는 72.9%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총여는 36%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각기 예비역과 여성들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서 이긴 당선자들은 '후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

(관련 인터뷰 2면)

## 지면안내

- 4 시사: 중소기업 활성을 위한 방안 모색
- 5 사회: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시민운동
- 7 학술: 학내 학술, 학회 활동을 점검한다
- 8 문화: 문화산업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 12 Free Style: 경희



## 이주의 Focus

### 축제

이번 주 양 캠퍼스는 모두 축제기간을 맞이한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열리게 되는 축제.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이나 축제를 내뽀내며 맞이하는 예비 졸업생들에게나 축제는 변함없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점'이 되고 있다. 과, 동아리 할 것 없이 OO동기 주점, OO 기금 마련 주점 등 다양하고 기발한 목적으로 캠퍼스 전체를 매꾸는 주점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장상의 부정까지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학문을 열거하는 대학인데도 선보일 수 있는 일이 '술 과'일 뿐이라면 너무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각 과나 동아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이벤트를 이번 축제 때에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부>

## 사 고

### 대학주보 시문에 공모 입상자

- 당선 백도준 (국문 4)
- 기자 윤명숙 (시리 3) 배호남 (국문 4)
- 입선 이상봉 (국문 3) 송태문 (정경대 경영 4)

(관련기사 9면)

축하합니다  
대/학/주/보/사

## 알림

### 도깨비 장터 참가자들에게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깨비 장터'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판매액 환불 및 물품 반환은 오는 19일 서울캠퍼스 편집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증자는 경희발전기금 기부서 명단에 실립니다.

대/학/주/보/사

## 작판으로 변해버린 캠퍼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학교에 가면 자신의 자리가 있어 좋았던 때를 지금의 대학생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 자신의 자리를 잃는다면 그 심정이 탐탁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해 빼앗겼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바자회, 경연대회 등 몇 주동안 학생회관 문扉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바자회가 출전하는 LAD저스 경기를 보기 위해 학생회관 한쪽으로 몰아 놓은 의자에 앉아 TV시청을 하는 학

생들조차도 바자회만 보일뿐 어느 누구도 캠퍼스의 주인 자신들이 구성으로 내몰려진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한 총학생회도 이번 행사가 좋은 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행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자회 첫날에 사과문을 현관마다 붙였다"고 이형수 경희발전위원장은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학내로 들어오는 상인들과 외부행사로 인해 실제로 많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 오고 있다.

토익이나 영어 교재 등을 사온품을 내세워 학생들을 현혹한 뒤 구매도록 하는 등 각종 판매상들은 도서관 앞에서까지 물건을 팔며 학생들의 자치공간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자치공간만을 침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배움의 전당을 한낱 시장판으로 전락시키고 학문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더이상 학교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한다. 학생들은 마치 버스를 타는 것과 같이 등록금이란 요금을 내고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면 내리는 손님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를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채 떠돌다가 때가 되면 군대를 가고, 졸업을 할 뿐이다.

이번주는 대동제 기간이다. 대동제를 통해 서로의 의미를 한번쯤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문택 기자)

